참사람 36.5℃

Vol. 40 | 2024년 5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4년 5월 3일 금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참사람 36.5℃ 온라인
chamsaram.org

Cover Story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이 말은 곧, 특정 직업인이 아닌
사람의 도리 혹은 삶의 이치를 안내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과연 우리에게 '참스승'은 누구였을지
함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04

참사람을 말하다

나의 스승

글 _ 강정미

부산 하단중학교 수석교사

2023 대한민국 스승상(홍조근정훈장) 대상

10

책으로, 참사람으로

'천개의 파랑'을 읽고:

때론 느려야 한다는 걸

이우고등학교 노효은

'천개의 파랑'은 어떤 책?

글 _ 이은주 교사

16

재단 소식

2024 신학기 이벤트 '우.반.소'

반장 소개 부문

선정글 안내

08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해 준,

나의 참사람 담임선생님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예성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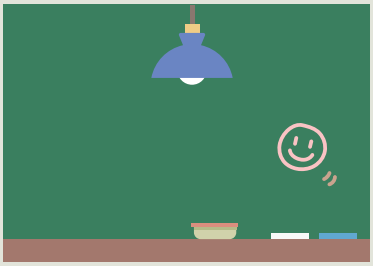
현장 속으로

성장학교 별 김현수 교장 선생님의

서울대 강연 이야기

치유적 학교 세우기 :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18

재단 소식

2024 신학기 이벤트 '우.반.소'

급훈 소개 부문

선정글 안내
</table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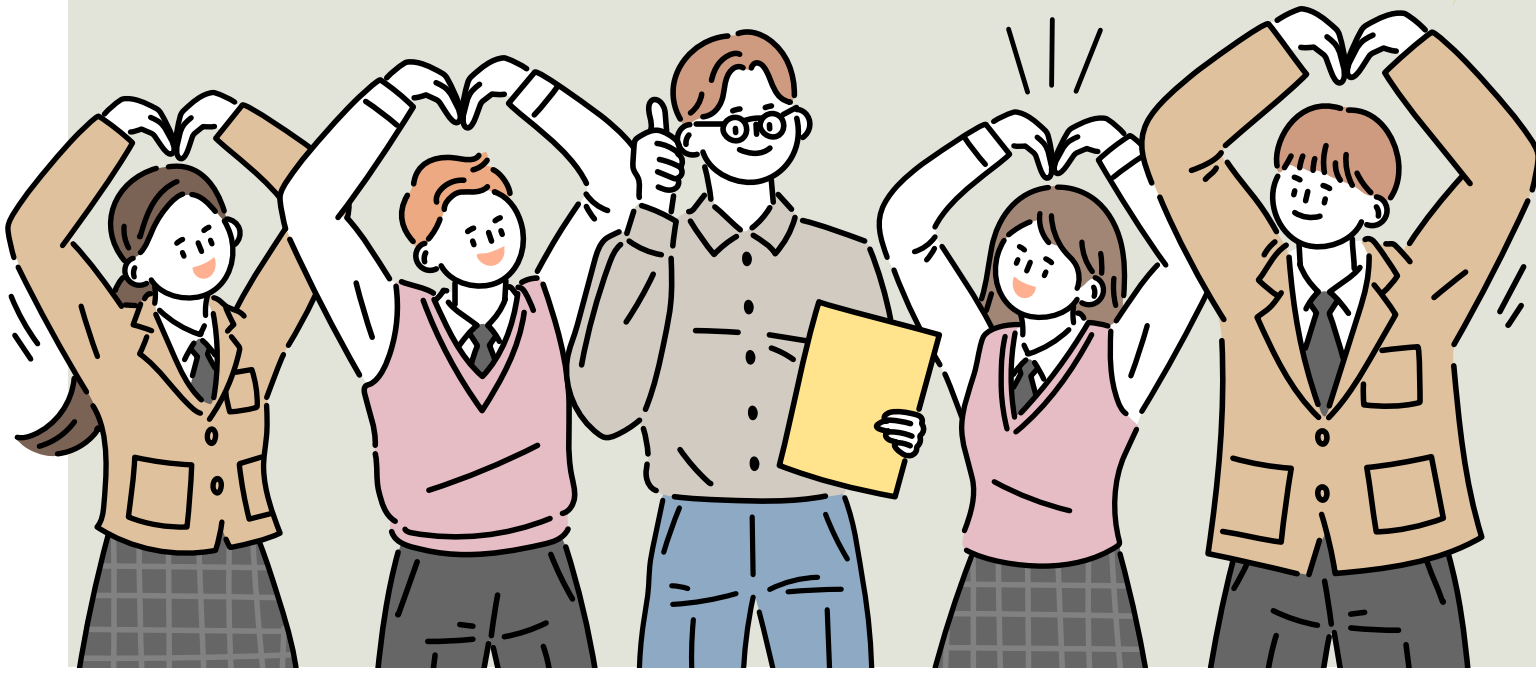
1.
나의 스승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누구도 저 혼자 자랄 수는 없다. 나를 길러 준 스승이 누구일지 생각해보면 누구 한 사람만 떠올릴 수는 없고 내 곁을 지나갔던 많은 이들이 떠오른다.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영향을 준 한 사람만 꼽을라치면 나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언제나 손에 책을 들고 있던 나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봄꽃이 휘날리던 아름다운 계절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아버지께서 암에 걸려 반 년가량 투병하시면서부터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락거렸던 나는 장례식 운구차를 타고 가면서 그해 봄꽃을 처음 보았다. 길에 흩날리던 벚꽃을 보며 새삼 “아버지, 3월은 너무 바빠요. 교실 환경미화(10여년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행사이다)도 해야하구요. 그리고 부활절 지나서 가셔야 해요.”라고 눈도 뜨지 못하고 누워계신 아버지께 주절주절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의 스승이셨던 아버지는 정말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내가 지난 주말에 잘못을 했던 우리 반 아이와 한참 바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나의 아버지가 스승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스승



강정미 부산 하단중학교 수석교사/2023 대한민국 스승상(홍조근정훈장) 대상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과거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어르신도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힘, 문해력(文解力)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안팎에서 융합 교육을 펼치고 있다. 과학 교사이지만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쓴다.
부산지역 환경 교과서 「부산의 환경과 미래」 집필 등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며 다양성을 갖춘 교육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에 힘썼다. 2012년부터는 영재교육원 강사로 활동하며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리더십 특강 강사로 나서며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했다.

떠오르는 장면은 필자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집에는 늘 하숙생 같았던 남자 고등학생이 있었다.
몇 달 있다간 가고, 또 며칠 있으면 다른 남학생이 오곤 했다. 어렸을 때라 무슨 일로 있는지 몰랐지만 어른이 되고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로는 형편이 어려웠던 학생이라고 했다.
‘우리 집에도 다섯 형제나 있었는데 넉넉하지 않은 교사 월급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제자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잊지 않고 찾아와 아버지와 엄마를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기도 했다.
어쨌든 그런 일상을 보고 자란 나는 교육자라는 직업이 단순히 밥벌이에 그치는 직업인이 아니라 하나의 성직처럼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일임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

필자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은 늘 “넌 선생님이 잘 어울려”라는 말을 했다. 그 당시 난 사범대학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을 때라서 “무슨 말이야?”라고 넘겼지만 결국 친구들의 말이 적중하여 지금까지 선생님을 하고 있다.
또 잊히지 않는 장면은 아버지 장례식 때였다.
3일장이었는데 발인하는 날 새벽에 서울에서 내려와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었던 40대 중반의 아버지 제자가 있었다. 바빠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넋두리처럼 늘어놓는 것을 보며 ‘아버지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참 힘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당시 교사를 하고 있던 나에게 “내 장례식에 찾아와서 이렇게 울어줄 제자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던 생각이 난다.

다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늘 책을 끼고 사셨다는 것이다. 술을 많이 좋아하시기도 했지만 책을 많이 읽으셨다. 아버지는 동정심이 많아서 당시 교무실에 책을 전집으로 팔러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많은 책들을 집으로 사다 나르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많은 동화책과 세계문학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되었다. 초등학교(당시엔 국민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세계동화전집을 다 읽느라 그림일기 방학숙제를 개학 전날 몰아서 한꺼번에 했던 기억이 난다. 이것이 나의 독서 몰입의 첫 번째 경험이다.
이러한 환경이 내가 독서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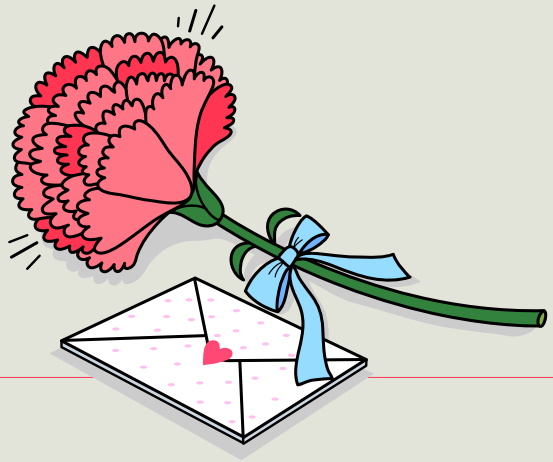
2.
참스승이란?

지금 이 시대에 스승이 존재할까 자문해본다. 스승과 제자는 사라지고 선생과 학생만 남은 현실이며, 더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만 남은 현장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와 같은 당부를 했다면 작금의 현실은 교사들이 민원 때문에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란 학생들을 기르는 농부라고 생각한다.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승은 학생들을 세심한 관심과 돌봄으로 기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정을 지키는 부모님이나 학교를 지키는 교사들의 목표는 같다.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보자는 것인데 같이 힘을 합하여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좋을 것이다.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큰 틀과 큰 목표를 바라보며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

"지금 시대에 참 스승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학습자들을 이끄는 분이다.
참스승은 전통적인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참 스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현대의 참 스승은 다양한 경험과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깊은 전문 지식과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참 스승은 열린 마음과 통찰력 있는 태도를 가질 것으로 본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한다.
셋째, 현대의 참 스승은 학생들을 존중하며, 인간적인 접근으로 교육과 지도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감정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넷째, 현대의 참 스승은 기술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과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할 것이다. COVID-19로 인해 현장에 앞당겨 실시하게된 블렌디드 수업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도구인 온라인 플랫폼, 다양한 디지털 자료, 소셜 미디어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한다.
참 스승은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학습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계속 파악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최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참 스승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며, 자기성찰과 성장을 장려한다. 삶의 깊은 의미와 목표를 탐구하고, 학생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헌신의 마음자리를 갖춘 참 스승들은 현대 사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3.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소회

작년에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스승의 날에 어떤 학생이 교실에 들어오시는 모든 선생님에게 꽃을 한 송이씩 준비하여 교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것이다. 그런데 이 꽃을 학생회 이름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올려둔 것이라서 청탁금지법에 걸린다는 것이다. 꽃을 수거하여 학생에게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선생님들은 경위서를 쓰는 해프닝이 있었다. 청탁금지법 덕분에 많은 영역에서 투명해지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진 것은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잣대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여전히 뉴스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도 낯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스승으로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 사십 대 중반에 접어든 제자가 찾아왔다. 사실 학교 다닐 적에는 가출한 그녀를 방과 후에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닐 만큼 나의 애를 많이 태우던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삼십 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어렵게 나를 수소문했는데 네이버에서 우연히 나를 검색해서 찾게 되었다며 수줍게 그간의 사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새로 만난 그 아이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으며 그렇게 살기위해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나에게 누가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면 나는 '건강한 시민을 기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꽤 나의 교육철학대로 살아온 세월이지 않았을까 스스로 생각하였다.
그 옛날,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어서 교과 선생님께 혼이 났는데, 담임인 내가 '배고프면 도시락 좀 먹을 수 있지'라며 그냥 돌려보내서 혼나리라 생각했던 예측과 달라 어안이 벙벙했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돌봄과 인정, 격려가 쌓여서 이 아이가 삼십 년이 걸려서라도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나의 작은 돌봄(사랑)이 모이고 모여서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면 나름 나의 교직생활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자족하는 웃음을 나에게 보낸다.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해 준, 나의 참사람 담임선생님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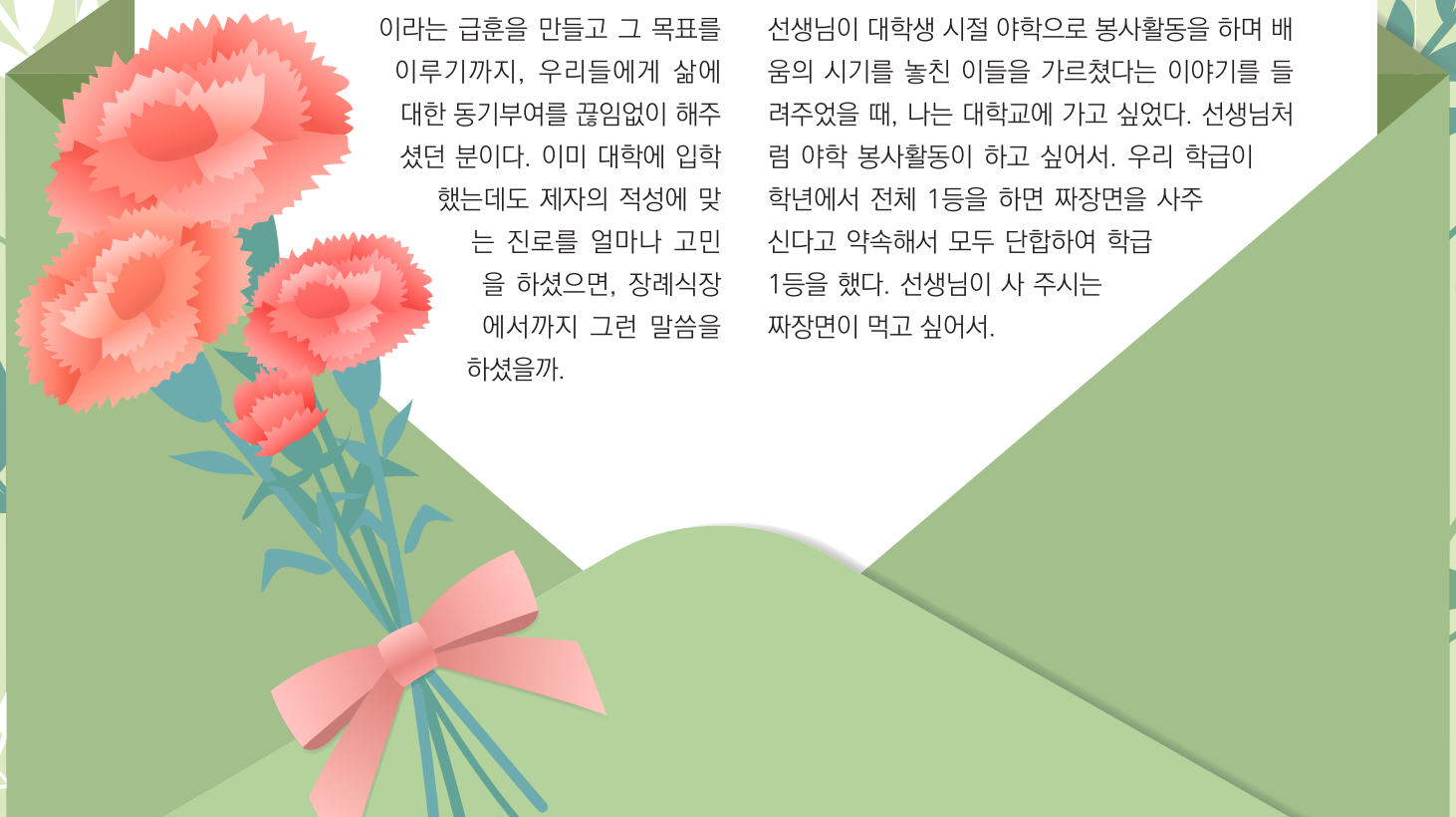
내가 스무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는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조문을 오셨다. 아직 어렸던 나이, 생애 첫 장례식장에 와보는 것이 하필 아버지의 장례였던지라 모든 게 낯설기만 했다. 그 자리에서, 담임선생님은 상경학부를 입학한 내게 문예창작학과를 다시 준비를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물으셨다. 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담임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셨다. 성적이나 경제형편으로 차별대우가 심했던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숨은 재능과 적성을 찾아주시려 했다. '전원합격'이라는 급훈을 만들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주셨던 분이다. 이미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제자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얼마나 고민을 하셨으면,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체념이 섞인 제자의 대답을 듣고, 선생님은 조문을 마친 후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셨다. 나는 어려서부터 편찮으셨던 아버지를 병간호해야만 했다. 가정의 생계를 힘들게 꾸려나가는 어머니를 오랜 시간 지켜봐온 나는 어떤 때는 일찍 철이 든 착한 딸이, 어떤 때는 사춘기 반항아가 되었다. 그 때 나를 유일하게 위로해주던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던 소설책들, 그리고 조회나 종례시간마다 들려주었던 담임선생님의 이야기였다.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 야학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배움의 시기를 놓친 이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대학교에 가고 싶었다. 선생님처럼 야학 봉사활동이 하고 싶어서. 우리 학급이 학년에서 전체 1등을 하면 짜장면을 사주신다고 약속해서 모두 단합하여 학급 1등을 했다. 선생님이 사 주시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선생님은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공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다. 아무리 옳고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으면 멈춰야 한다고,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던 담임선생님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불이 날 때도 있었다. 어느 날은 자율학습 시간에 빠진 학생들의 명단을 부르시며 교무실로 오라고 호출하셨기에 잔뜩 불만이 생겼다. 나는 선생님의 주의를 받고 나오며 교무실문을 아주 세게 닫고 나왔다. 흔히들 표현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었다. 아마 오기가 생겼나보다. 내가 요즘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깟 자율학습 한번 빠진 걸로 혼나야하는지, 당신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

선생님께 바로 답장이 왔다. 인기가 많았던 담임선생님에게 유일하게 답장을 받은 학생이 되면서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반응에 갑자기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선생님의 편지 내용은 너무 따뜻하고 다정했다. 지금까지 24년을 고이 간직할 정도로 말이다.

"자신을 조금 더 추스르고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날. 결코 세상은 어둡고 힘든 곳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그날. 우린 만나 고등학교 때의 힘들었던 지금을 추억으로 삼아 차 한 잔과 웃음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 담임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너의 인생선배로서 아니, 너만큼 힘들었던 시절을 한 때 보낸 적이 있었던 동지로서 너의 힘듦을 껴안을 수 있기에 비록 말하진 않아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다오." (1997년 3월 14일)

40대 중반의 어른아이인 내가, 아직도 세상 살기가 버겁고 힘들 때 꺼내보는 담임선생님의 편지다.

2022년 5월 14일, 선생님과 나는 서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24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서로 대화를 나누니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듯 벅차오르기까지 했다. 선생님은 교사를 퇴임하시고 박사과정을 밟은 후 지금은 평생교육대학원에서 신학 강의를 하고 계시다. 역시 선생님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2의 인생이 참 멋지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전,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홍보용으로 나눠 준 조그마한 뻥튀기 과자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선생님. 선생님은 일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성인이 된 제자들이 식사대접이라도 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완고하게 거절하셨다.
본인은 베풀고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서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 드리는 커피 한 잔과 뻥튀기 과자를 함께 드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다.

함께 사진을 찍는데, 눈앞의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불현듯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 아니, 그냥 '좋았다'라고만 표현하기엔 아까울 정도로 뭐라 표현할 수 없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선생님은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셨다. 지금처럼 회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눈앞에 계신 이 분의 존재가 더 감사하게 느껴졌나 보다. 비현실적인 시간처럼 느껴지던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싶었다. 24년 만에 만나, 4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느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서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말씀해주신 담임선생님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늦은 나이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방송대 문예창작콘텐츠학과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자 선생님은 크게 기뻐하셨다. 이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어 오늘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 속 고등학생인 어린아이 김예성이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40대 중반의 늦깎이 신입생이 되었으니, 내 이름으로 된 멋진 글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편지를 써서 선생님께 드렸다.

"담임선생님이 왜 좋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라고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이 세상의 참 사람이에요. 진짜 어른. 어른다운 어른."

나만의 SNS에서만 선생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교보교육재단을 통해 우리 선생님을 너무너무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다.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럼 누구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거라고. 이 세상, 살아갈만하다고 말이다.

'천 개의 파랑'을 읽고

때론 느려야 한다는 걸

이우고등학교 **노효은**

콜리에게

콜리야, 너는 그렇게 말했지. 우리는 살아가며 천천히 달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글쎄, 〈천 개의 파랑〉을 처음 읽었을 땐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 이해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라서, 천천히 달려야 한다는 너의 말을 이해했지마는 감각으로 온전히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의 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파 〈천 개의 파랑〉을 주제로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있지 콜리야,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그래서 자꾸 달리게 된다고. 사실 그런 초조함은 어렸을 적부터 내게 별로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대게 다른 사람에게 따라잡히는 역할이 아니라, 타인을 추월하는 입장이었거든. 다른 사람들은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계속 빠르게 달린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추월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더 빠르게 달리려고 했어. 경쟁에서 당신보다 내가 빨랐다는 우월감, 승리했다는 성취감, 선두 주자에 있다가 내게 따라잡힐 때 상대가 느낄 절망을 상상하며 자만하곤 했어. 그래서 아주 빠르게 달렸어.

사람들을 그토록 쉼 없이 달리게 만들었던 이유인 '뒤쳐짐'을 패배자에게 안겨주면서 우월을 만끽한다는 이유로 달려왔는데, 언제부턴가 갑작스레 수많은 허무가 밀려오더라. 그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 빠르게 달려서 좋을 게 무엇일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 그 알 수 없는 목적지까지 남들보다 빠르게 간다고 해서 무엇이 좋을까, 앞서 달려간 그곳이 나락이면 어떨까, 그렇다면 1등은 대체 무슨 소용일까. 뭐 그런 의문들이 내 안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달까.

그런 무력과 회의는 기어이 내 발목을 잡아 무릎을 꿇렸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너무 지쳐버렸어. 이젠 그냥 너무 숨이 차서 달리다 말고 그대로 우뚝 서버렸어. 너무 지
쳐버려서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
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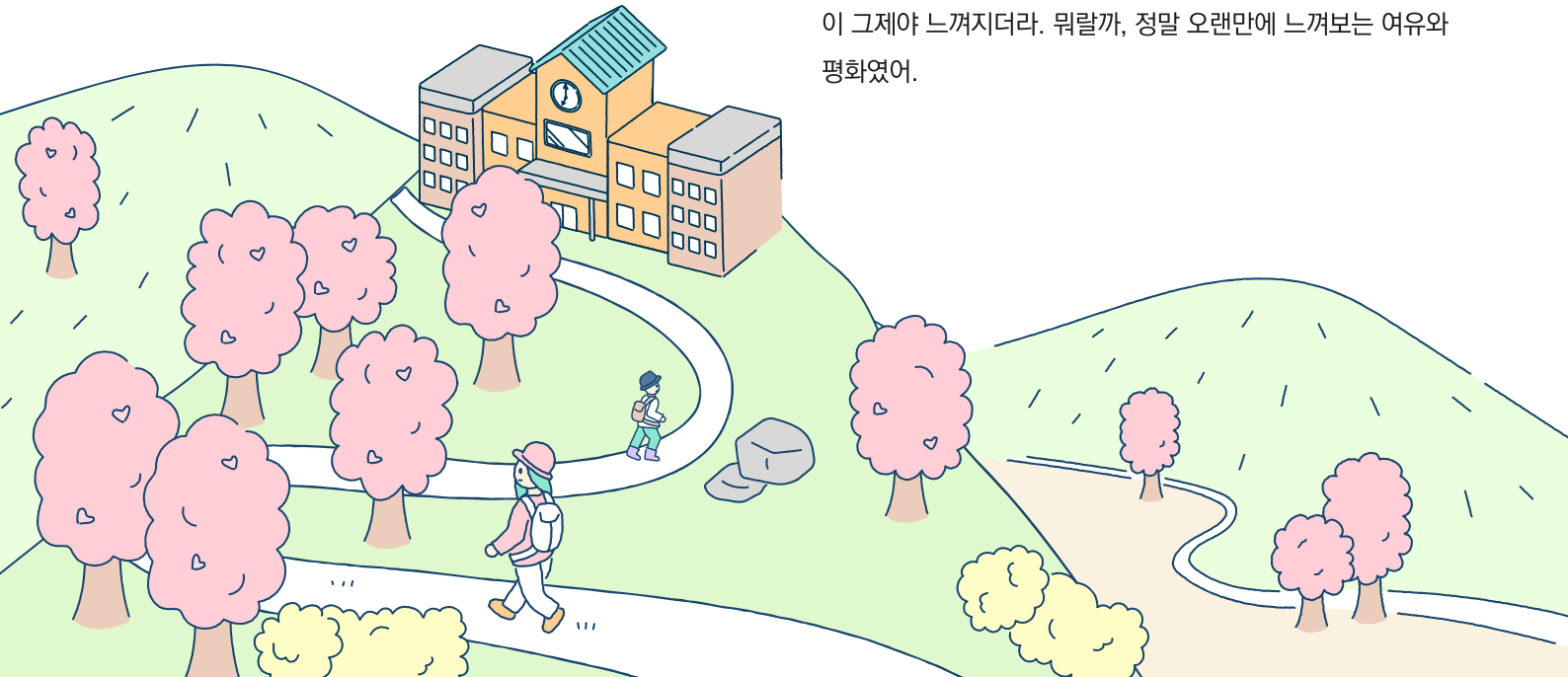
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멈춰 서서 영원 속에 침잠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 네 생각이 나더라. 투데이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늘 1등을 하던 너는, 나와 달리 그 등수가 중요치 않았을 거야. 나는 달리면서 남을 제치는 게 좋았다면 넌 달리는 행위 자체를 좋아했겠지. 너의 세계에서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더라. 그저 투데이와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파랑들의 하늘만이 있었어. 그런 세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어쩌면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할지도 몰라.

근데, 어느 팔월의 아침에 나도 달려야 할 이유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어. 우리학교는 산 속에 위치해있어. 낡은 카센터를 지나 거름똥내가 나는 길을 지나면 등산로가 나타나. 물론 경사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학교의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는 숨이 너무 거칠게 내쉬어져서 다른 친구들이 나의 힘듦을 눈치 챌까 민망스러 억지로 호흡을 옅게 쉬곤 했어.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내가 큰 소리로 헉헉대면 저질체력인 학생이네, 하고 바라볼 것만 같았달까.

뭐랄까,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는 매일 아침은 항상 고역이야. 숨은 부족한데 억지로 옅은 호흡을 내쉬어야 하는 게 너무 힘든데다가, 나는 빨리 걷는다고 걷는데 내 옆길로 몇몇 학생들이 성큼성큼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꼭 내 체력이 남들보다 떨어지는 듯 느껴져서 꾸역꾸역 속도를 높였어.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땀범벅이 된 채로 불쾌감에 찌들어있었지.

근데, 오늘 등굣길에 내 앞에 있는 한 여학생이 아주 천천히 걷는 거야. 단순히 천천히 걸었다-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느리게. 그 모든 순간들을 인고하듯이, 그 누가 저의 곁을 스쳐지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며. 아주 차분하게 한걸음, 한걸음 느릿하게 걸었어. 평지에서 걷는 것 보다 세 배는 더 느린 속도로 걸어갔어. 나는 그 누군지 모를 학생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네가 생각났어. 문득 나도 그런 느린 걸음을 걸어보고 싶어서 속도를 늦췄어. 아주 차근차근 한 발씩 앞쪽으로 내딛으며 숨을 들이 키고, 내쉬었어. 또 가만히 눈도 감아보며 풀내음을 느꼈어.

그러자 요동치던 심장 박동이 차근차근 여유를 되찾았어. 몸은 기분 좋게 내리쬐는 햇빛을 받아 서서히 달궈졌고, 호흡은 아주 편안해졌어. 그제야 주변 경관이 보이더라. 갈색으로 고독하게 물든 잔디 속에서 덩그러니 솟아있는 코스모스가, 신학습관으로 가는 통로 울타리에 무성히 자란 잎사귀 속 능소화의 붉음이, 오밀조밀 엮여있는 바닥의 풀잎새들이, 저 산속 어디선가 들리는 풀벌레의 울음이, 상기된 두 뺨을 스쳐가는 상쾌한 바람이 그제야 느껴지더라. 뭐랄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평화였어.



그때 깨달았어. 때론 느릿하게 걸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걸. 되게 신기하지? 나는 걸음의 속도를 늦췄을 뿐인데, 그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다는 게. 정말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아침을 훨씬 더 기분 좋고 상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콜리야, 너는 맨 처음에 천 개의 단어만을 구상할 수 없다고 했지? 언어를 십 몇 년 간 학습해온 인간으로서 네가 가진 천 개의 단어 정도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품기에는 부족해보여. 다만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천천히 걷던 그 몇 분 동안 인간의 언어로 구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가령,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는 인간의 수만 감정을 포괄해. 어떤 감정은 쨍한 느낌의 행복이고 어떤 감정은 보드라운 느낌의 행복이고.. 그 수많은 감각들을 인간은 하나의 단어로 정의했고, 또 어떤 감각들은 정의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정의되지 못한 단어들은 내가 빠르게 지나쳐버리면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지. 너 역시 천 개의 단어들을 지닌 채 세상에 태어났지만 천 개의 단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감각들을 느끼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관찰하고자 달리기로 했어.

아주 천천히 달려서, 세상의 아름다움들을,
내가 미처 언어로 구현할 수 없는 존재들을
누리기 위해.

'천개의 파랑'은 어떤 책?

인간과 휴머노이드 그리고 동물의 따뜻한 공조

가까운 미래인 2035년, 휴머노이드 경마용 기수 '콜리', 경주마 '투데이' 그리고 연재와 그의 가족이 그려내는 파랑파랑한 SF 장편소설입니다.

책 속 주인공들은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간처럼 사고하는 '콜리'는 폐기를 앞두고 있고, 더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는 말 '투데이'는 곧 안락사당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연재와 그의 가족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중이지요.

어느 날 연재는 휴머노이드 '콜리'와 함께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바로 경주마 '투데이'가 안락사당하기 전 행복하게 달릴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인데요. 인간과 휴머노이드 그리고 동물의 비밀 공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방향으로만 빠르게 달리느라 '느리게 달리는 방법'을 잠시 잊고 살았던 여러분에게 행복과 그리움, 실수와 도전, 자유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책을 선물합니다.

이 은 주 보평고등학교 사서교사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사회를 바꾸는 일임을 굳게 믿고 실천하려는 사서교사입니다.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아직 좋아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뿐'. 그러기에 오늘도 사회를 바꿔나갈 학생들에게 책과의 소개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성장학교 별 김현수 교장 선생님의 서울대 강연 이야기

치유적 학교 세우기 :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교보교육재단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 '참교사' 양성을 위한 교보교육대상 수상자 강연을 오는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두 번째 시간으로 정신과 전문의이자 '성장학교 별'의 교장 선생님이신 김현수 수상자 특강이 진행되었는데요. 김현수 선생님은 정서적, 정신적, 발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믿음으로 치유적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과 '청년행복학교 별'을 설립,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치유를 거쳐 성장으로

먼저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님께서 강연을 맡아 주신 김현수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김현수 교장 선생님을 '학습자 개개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교육적 토대 위에서 학습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는 분'이라 소개하며, 김현수 선생님의 교육관을 '치유를 거쳐 성장으로'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책 '괴물 부모의 탄생'을 소개하며, 교육은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야하는데 많은 경우 조력자가 되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자기중심성을 극대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성장학교 별의 학습방식을 우리 사회가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장학교 별, 그 시작점

김현수 선생님께서는 불과 서른 다섯이라는 젊은 나이, 성장학교 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경북 김천의 소년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셨다고 해요. 소년수의 대부분은 빈곤층이었고, ADHD를 비롯해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으며,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범죄와 빈곤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가치관은 대안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은 영국의 서머힐 스쿨 등 해외의 교육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위축되고 무기력한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기 정체감을 북돋을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프레네 교육'에서 해답을 얻고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학교

성장학교 별은 아이들이 듣고 싶은 수업,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과정이 설계됐습니다. 어떤 친구는 분노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했고, 어떤 친구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성향을 고치고 싶다며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방안을 배우는 수업을 원했습니다. 별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수업을 구상하고, 여행을 가고, 요리를 만들고, 밴드부를 만들어 합주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하고 싶으면 보컬이 될 수 있었고, 악기를 다룰 줄 몰라도 배우고 싶다면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다고 해요. 어느 날 김현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별에 와서 뭐가 제일 좋니?' 아이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친구가 생겨서 좋아요.' 보통의 학교에서는 섞이기 어려웠던 탓에 좀처럼 친구를 만들 수 없었던 학생들은 성장학교 별에서 친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친구를 얻었습니다.

관계, 관계, 관계

김현수 선생님은 별 학교를 운영하며, 개인의 정체감과 집단 내부에서의 정체감,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은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아이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제대로 형성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자신감을 함께 얻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은 '교육이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공동체의 힘을 알려주는 것이다'며, 3R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R이란 세가지 관계(relationship)을 뜻하는데, 첫째는 또래 및 동료와의 관계, 둘째는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과의 관계, 셋째는 국가 및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하며 그러한 '관계역량'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께서는 이외에도 마리아 몬테소리 등 교육의 구루(GURU), 그리고 치유적 학교의 역사와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는데, 미래의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뜨거운 고민들이 이어졌고 많은 토론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된 교육의 단서, 그리고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교보교육대상 수상자 서울대 강연 두 번째 시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상자 강연은 오는 6월까지 계속 진행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강연신청 :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www.kbedu.or.kr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하는 2024년 신학기 맞이 기획 이벤트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선정

'반장 소개'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운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앞장서 이끌어나갈 참된 리더를 선발하는 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 3월, 교보교육재단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4월 10일까지 학급의 급훈과 반장을 소개하는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참사람 36.5도 5월호에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선정된 재치있고 의미있는
급훈, 그리고 반장 소개글을 안내합니다.

※ 반장 소개 부문은 총 20편을 선정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편씩을 소개합니다.

대건중학교 김*훈

반장소개

우리 반 반장은 정*은입니다. 짧은 단발머리의 여학생인데, 늘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어색함을 없게 해주는 것이 이 친구의 매력입니다. 올해 우리 반 아이들의 분위기가 말 수가 많이 적은 편인데, 수업 시간 선생님의 질문에 친구들의 반응이 적으면, 잘 모르더라도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그런 반장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조금씩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우리 반 반장은 뛰어난 대인 관계 전문가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감정을 잘 이해하며 타고난 공감 능력이 있어 학년 초 어색했던 우리 반 아이들 속에서 홀로 많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반장을 중심으로 대인 관계가 넓어지며 몇 주 만에 반 아이들을 모두 친한 친구,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반 반장은 문제해결력이 뛰어납니다. 학급의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원인을 찾고 부반장과 해결책을 찾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합니다. 청소 지정, 자리 배치, 학급 환경 정리 등 여러 가지 학급 활동이 원활하게 진해되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반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반장의 공약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반 반장은 공약을 그동안 선거 공약에서 볼 수 없었던 Q&A 형식으로 기발하게 정리하여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Q. 반장 출마 이유?
A.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위해 1년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돕고 일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반을 잘 이끌어 나가고 좋은 반을 만들 자신이 있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급이란?
A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믿음으로 잘 엮여있으며 친구들 간의 관계 또한 소외되는 친구 1명도 없이 잘 맺어져 있는 단합이 잘 되는 반입니다.

Q. 우리 반을 수업, 공부 면에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A.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수업 시간 모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겠습니다.

Q. 우리 반 교우관계를 1명도 소외됨 없이 어떻게 끈끈하게 만들 것인가?
A. 소외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그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학교 생활을 함께 즐겁게 하겠습니다.

Q. 추가로 하고 싶은 말

A. 3학년 반들 중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자부심을 가질 반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1. 학급 회의를 진행할 때 미리 학급 SNS 단톡방에 회의 안건을 공지하고, 친구들의 의견 제시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의견들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2. 수업 분위기 관리를 위해 선생님 입실 전 칠판 점검, 친구들의 바른 자세 앉기, 모둠 편성 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내 학교 행사 이동시에서 가장 먼저 해당 장소에 도착하여 인원을 파악하고 질서 정리를 합니다.
3. 공지사항, 평가 및 과제 제출 일정 등 각종 공지 사항을 모든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빠짐없이 교실 칠판에 정리해줍니다.
4. 학급 친목 및 교우관계 관리를 위해 쉬는 시간 되도록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고민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친구에게 격려의 말을 해 줍니다.
5. 학급 정원 가꾸기, 음악과 함께 하는 청소 시간, 좋은 말 게시, MBTI를 통한 우리 서로 알자 등 가족 같은 반을 만들기 위해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진행합니다.

삼천포여자고등학교 *반

반장소개

새 학기, 새 학교, 새 친구들, 새 선생님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반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학급 분위기 조성? 친구들과의 소통? 리더십? 봉사 정신? 우리 반 반장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 활기차고 웃음 많은 반장

3월 초 다양한 중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 어색한 상황 속에서, 반장은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한 명씩 말을 걸어 친해지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바지했습니다. 활기차고 웃음 많은 반장 덕분에 학급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잘 들어주는 반장

항상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소한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잘 들어주는 반장 덕분에 편하게 의견을 말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 적극적인 반장

친구들을 이끌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도 앞에 나서서 행동합니다. 적극적인 반장 덕분에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편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 반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멋진 반장입니다!

반장의 공약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공약은 '알리미'입니다. 알리미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카카오톡 혹은 일과 중에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매일 17시 이후 학급 단톡에 준비물, 각 과목별 숙제/수행, 시험 관련 사항, 학교 행사 등을 정리하여 공지합니다. 또 당일 시간표와 급식 메뉴는 반장이 직접 외워 일과 중 어디서든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소원을 말해봐란, 학교생활 중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함 역할입니다. 게시판에 부착된 종이에 학급 개선사항, 필요한 물품, 원하는 이벤트 등을 작성하면 반장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시험기간 서포터'입니다. 시험기간 서포터란, 시험 기간 동안 반 친구들의 시험공부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교실 뒤 간식 상자 배치, 동기부여 이벤트, 과목별 필기 공유를 통해 친구들의 시험공부를 도와줍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매일 준비물, 과목 별 전달 사항 등을 미리 노트에 정리해둡니다.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전달 사항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학급 단톡에 공지합니다. 지난 한 달간 하루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매일 시간표와 급식 메뉴를 외워 친구들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줍니다. 4교시나 7교시 같이 슬슬 집중력이 떨어질 때면 당일 급식 메뉴를 미리 알려주며 힘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매일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친구들이 적어준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머리끈과 머리핀, 필기구, 연필깎이 등을 교실 뒤에 배치했습니다. 또, 3.25(월)~3.29(금) 5일간 마니또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간식 상자에 넣어둘 간식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또 과목별 필기 공유를 위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고 기록해둡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험 기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선정 '급훈 소개'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비를 맞아야 한다

최*윤
청도고등학교

모두가 무지개를 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겁니다. 바로 비입니다.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는 푸른 뭉게구름과 함께 곡선을 그리며 색을 빛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습하고 어두우며 우산을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지개를 떠올리면 밝고 희망 찬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비라는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나면, 분명 밝고 희망 찬 미래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 함께 이겨내고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풋사과 품속 애벌레들, 나비로 거듭나라!

김*현
온빛초등학교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학교 막내 선생님이라는 점에 비유하여 풋사과 품속에 사는 애벌레들이 나비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독려하는 흥미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풋사과는 담임 선생님을 상징합니다. 풋사과는 아직 익지 않아 단맛보다는 신맛이 강하며, 겉모습도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막내 선생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2. 애벌레는 학생들을 상징합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전 단계로, 겉모습은 추하고 못생겼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학생들과 유사합니다.
3. 나비는 성장한 학생들을 상징합니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학업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여 꿈을 이루는 학생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풋사과 속 애벌레들이 나비로 성장하듯, 학생들 또한 담임 선생님의 지도와 가르침 아래 성장하여 꿈을 이루는 나비가 되기를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잠재력을 가진 초임 선생님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도 별이 될 테니

지족고 2-10
지족고등학교

저희 반의 급훈은 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높게 잡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의 꿈보다는 지금까지의 결과와 현실로 나의 한계를 정하게 되며 배움의 원동력이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우리이기에 땅보다 하늘을, 하늘보다 우주를 바라보는 의지로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자는 의미와, 실패해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현재 나의 노력들이 결국 빛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토평고 3-6
토평고등학교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는 배우이자 가수인 김창완님이 쓴 책의 제목이다. 우리가 그리는 동그라미가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 또는 우리의 성과들 또한 조금 찌그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꼭 하나의 동그라미만 그려야 하는 건 아니다. 몇 십개든, 몇 백개든 다시 그릴 수 있으므로, 이처럼 우리의 많은 것들을 다시 그려나가면 된다. 지금의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북돋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의 제목을 급훈으로 선정하였다.

아침 먹고 오세요!

김*아
구지중학교

우리 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학생들의 건강입니다. 새학기 첫날부터 건강을 중요시하셨는데, 우리 반이 건강해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잘먹고, 잘자고, 잘싸고! 라는 것에 모든 학생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아침을 먹고 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수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침을 먹고 안 먹는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침을 먹는 습관을 들여 모두가 건강해지자는 의미로 급훈을 만들었습니다.

i^4=1

배*인
효암고등학교

허수인 i처럼 좀처럼 결실이 보이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4번 이상의 노력을 한다면 실수인 '1'처럼 하나의 확실한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여기서 4번의 노력이란 예습, 수업 시간 집중, 복습, 정리를 말한다. 앞으로 해야 할 도전들이 두렵더라도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노력해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쌓아가다 보면 분명 뚜렷한 윤곽이 나올 것이니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의미다.
또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슬럼프같은 고비가 와 시작하기 전보다도 못하게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은 i^2 즉, -1의 상황이기에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니 절망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 더는 허수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실수이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3의 상황 즉 -i 일 때도 실수인 -1이 존재한다고 합리화하며 만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 박차고 나가 자연수인 1까지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우리에게 늦은 건 키즈모델 뿐!

김*은
번동중학교

아이들과 첫 만남을 이루는 개학식 날. 올해 민주주의 학급 교실을 운영하고자 급훈 공모전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과 만들어가고 싶은 가치와 철학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가능성의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지역 특성 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많아서 자신의 진로나 앞으로의 방향을 쉽게 단정해버리거나 단념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아이들이 함께 모여 이러한 저의 철학을 반영해 급훈을 만들었습니다.

日職集愛 可高拾多

日 일
職 직
集 집
愛 애
可 가
高 고
拾 십
多 다

임*희
목포중앙여자중학교

저희 반 급훈인 '日職集愛 可高拾多(일 직집애 가고십다/날 일, 직분 직, 모을 집, 사랑 애, 옳을 가, 높을 고, 주을 습, 많을 다)'의 의미는 하루 일에 애정을 모아야 능률도 올라가고 얻는 것도 많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잘 해결해나갈 수 있으며 얻는 것도 많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3년의 중학교 마지막 생활을 함께 하면서 하루하루 어떠한 일이든지 항상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반이 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꾀! 끼! 깡!

윤*인
신길중학교

첫째, 꾀는 지혜와 계획을 뜻합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수동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자기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끼는 열정을 뜻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다하자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상입니다.
셋째, 깡은 악착같은 오기와 배짱을 담은 의미입니다.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살아남고 무한한 가능성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쌍기역을 가진 자가 성공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은 이 모든 것을 모두가 가진 사람이 되어 성공하자는 의미에서 꾀끼깡을 저희 반 급훈으로 지었습니다.

재 깨워라!

김*영
용산중학교

우리 학교는 남학생들만 다니는 남자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간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생활에 익숙해졌고 중학생이 되어 받은 디벗(학습용 태블릿)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남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새벽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잡고 있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보니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엎드려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큼 적극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리고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해나갈 때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급훈이 선택되었습니다.

참사람 36.5℃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

KYOBO 교보교육재단
http://www.kbedu.or.kr